

수능성적 가중치 파악 우선...수능 미응시 지원분야 확인을

광주 지역 대학 정시 모집 전략

광주지역 대학들이 4000여 명을 선발하는 2022 학년도 정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했다.

광주권 대학들은 대부분 원서 접수 마감일이 1월 3일이지만 타 지역 일부 대학들은 마감일이 1월1일이나 1월2일인 경우가 있는 만큼 별도의 접수 전략이 필요하다.

전남대는 가장 많은 1486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전체 모집 4649명의 32%로 지난해보다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편입학으로만 선발하던 약학대학 약학부가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을 모집해 나군에서 23명을 선발한다. 가·나·다군 전형방식을 일원화해 100%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간소화 기조를 유지한다.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은 모집단위에서 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과 동일한 영역을 응시해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반영 영역을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전형은 서류평가·면접으로 선발하는 만큼 수능 미응시 수험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선대학교는 수능위주(일반전형) 891명, 수능

전남대·조선대 약학 학부 모집 동신대 한의예과 '수능 100%' 광주·호남대 계열별 통합 선발

위주(지역인재전형) 40명, 수능위주(군사학과전형) 10명, 실기위주(실기전형) 117명, 학생부위주(만학도전형) 6명 등을 비롯해 1358명을 뽑는다.

일부 학부에서는 광역화모집에 나선다. 광역화모집은 국어국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고전번역전공), 아시아어문문화학부(아랍어전공·중국어문화학전공·철학전공), 자연과학계열(컴퓨터통계학과·화학·생명과학·의생명과학·융합수리과학부)이다. 학생의 전공은 학생의 선택권을 100% 수용한다. 약학과(81명)는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고교로 확대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계열별 모집단위에 따라 가중치가 달리 적용된다. 영어영역은 등급에 따른 점수가 적용되며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된다.

동신대학교는 가군에서는 한의예과 20명, 간호학과 6명을 수능 성적 100%로 뽑는다. 다군(정원내 일반전형)의 경우 수능 성적 80%와 학생부 성적 20%로, 모두 567명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은 국어 25%, 수학 25%, 영어 20%, 탐구영역(상위 1과목) 20%, 한국사 10%이며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수험생은 백분위 취득 점수에 5% 가산점을 준다.

정시 모집 일반학과(한의학·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최초 합격자 모두에게 입학 등록금 전액을 우수 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전체 39개 중 36개 학과·학부의 최초 합격자들은 입학 때 첫 학기 등록금이 '0원'이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일반학과 수능 우수 장학금과 학생부 우수 장학금도 마련해 성적별로 4년간(8학기) 등록금 전액, 4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 등록금, 입학 등록금 50% 등의 혜택을 준다.

광주대학교는 가·다군 421명을 선발한다. 간호학과와 유아교육과·작업치료학과·건축학부를 제외한 34개 학부(과)는 계열(단과대학)별 통합선발 방식으로 모집한다.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은 수능 100%이며,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1과목) 10%, 한국사 5%다. 수확에서 기하, 미적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취득 백분위 점수에 10% 가산점이 적용된다. 앞서 광주대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 이내 신입생 등록금 전액 면제를 위한 전액 장학금 대상자 확대와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70만 원, 충원합격자 40만 원의 학업장려장학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호남대학교는 가장 적은 규모인 285명(나군)을 수능성적 100%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 반영방법은 국어·수학·영어·탐구·한국사 등 5개 영역의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며, 이때 탐구과목은 우수 1과목을 반영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보건·사범계열·프라이머리 관련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한 29개 학과를 통합선발 방식으로 모집한다. 외식조리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계열 29개 학과를 학과 구분 없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통합 모집하며 전체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통합선발 입학생은 통합선발 학과 중에서 희망학과 자율선택권을 100% 보장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국내 유일 한국산 호랑이 박제 표본 113년째 목포 유달초에 있는 까닭은

1908년 불갑산 함정에 빠져 있던 호랑이 농부가 잡아 일본 부호가 산 뒤 기증...귀중한 역사 자료 관리 시급

2022년 '호랑이의 해'를 앞두고 국내에서 유일한 목포 유달초등학교의 호랑이 박제(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박제는 113년째 유달초에 보관되면서 세월이 흐른 탓에 탈색되고, 털이 삭아 작아지고 윤기를 잃어가고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귀한 박제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자연사박물관이 아닌 항구 도시의 초등학교에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박제가 유달초에 놓인 시점은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농부가 영광군 불갑면 불갑산 기슭의 함정에 빠져 있던 암컷 호랑이를 발견해 붙잡았다. 호랑이는 10살 안팎으로 몸통 길이 약 1m 60cm, 몸무게 약 180kg으로 추정된다.

호랑이는 당시 일본인 부호가 사들였고, 그는 일본에서 박제 처리한 후 1909년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목포유달초교(당시 목포공립심상소학교)에 기증했다. 이 박제는 지금까지 113년째 학교 본관 복도 유리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 박제는 한국 호랑이의 유일한 박제인데다 연대·지역이 확실하게 적혀 귀중한 자연사적 자료인 만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자료 사진>

“광주에 월남전 참전비 건립해 달라”

참전자회 광주시지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광역시지부 회원들은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월남전 참전비(탑)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월남전 참전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외화를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경제 발전 기초를 닦았다”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지나온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하는 만큼 월남전 참전비 건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총 한국군 참전자는 32만 4864명으로 전투 중 전사자가 5099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만1232명에 달한다. 이중 광주지역에서도 5500여명이 파월됐으며, 전사자가 1563명에 달하고 현재 4564

명의 참전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이다. 월남전 참전탑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광역단위 지역에는 모두 있으며, 전남지역에도 상당수 지자체에 세워졌으나 유독 광주시에만 건립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광주광역시지부는 “참전이 좋아서 월남에 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10년 동안 광주시로부터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국가의 부름에 따른 참전으로 희생하고, 숨겨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이라도 참전탑을 건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당산나무 솎지 않게

광주시 동구 지산마을 주민협의체 마을 활동가들이 30일 지산동 당산나무에 겨울나기 뜨개질 옷을 입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동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6곳 선정

광주 동구가 2021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6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RFID기반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28개소를 대상으로 주민 참여의식과 감량 의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1년 동안 광주환경공단의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배출량을 확인해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세대별 배출량 ▲주민참여도 등을 평가해 6개 공동주택을 선정했다.

공동주택 28개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전년

대비 평균 3.3% 소폭 감소했으나 선정된 6개소 우수 아파트는 최대 16.7%, 평균 11.5%를 감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6개 아파트는 ▲최우수상 산수동 라도스 하임 ▲우수상 소태동 온세계 아이조움 ▲장려상 월남 호반베르디움 1차, 학동 모아미래도타운, 무등산 골드클래스, 윤림 라인광명아파트 등 총 6개소 상장과 함께 각각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4명 총경 승진 예정

경찰청은 30일 전남경찰청 허양선 홍보계장과 광주경찰청 박용 수사 2계장 등 87명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 발표했다.

광주청에서는 박 수사 2계장 외에 김용관 감사계장이 '경찰의 꽃'인 총경 승진 예정자에 포함됐다.

전남청은 허 홍보계장을 비롯, 주현식 감사계장이 총경 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다.

허 홍보계장은 순천매산고와 순천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경찰에 입문, 전남청 생활질서계장, 전남청 여성수사계장, 여성보호계장 등을 지냈다. 주현식 감사계장은 전남청 징병범죄수사대장, 수사 2계장 등을 역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